



‘虎시탐탐’

아기호랑이 이준호 ‘군웅할거’ KIA 외야 노려

이용규·김상현·나지완·김원섭에 김주찬 가세

“생존경쟁 뜨거워도 열심히 하면 기회 올 것”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준호의 이번 겨울은 따뜻하면서도 춥다. 이준호는 지난 시즌 이종범의 은퇴와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생긴 공백에서 ‘신데렐라’로 떠오른 선수다. 신고선수에서 당당히 1군 선수로 이름을 올리며 113경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2군 선수들의 희망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올 시즌 연봉은 26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경증 뛰어올랐다. 두둑한 연봉을 받으며 따뜻한 겨울이 됐지만 더욱 치열해진 외야 싸움에 예고되면서 차가운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 서야 한다. 이준호는 “기대 이상의 연봉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 지난해 운이 좋게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됐었다. 어떻게 보면 투수 엔트리가 빠진 상황에서 임시로 자리를 받은 것인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기본 좋은 2012시즌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준호를 1군에 붙잡아 둔 힘은 수비였다. 폭넓은 수비 범위와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눈길을 끌면서 자신도 기대하지 못했던 2012년이 됐다. 인정받은 수비의 원동력은 집중력이다. 이준호는 “집중력이 좋다. 타자들에 따라서 장타자인지 단타자 인지 생각하고, 많이 가는 타구 방향을 생각하면서 수비를 한다. 머릿속으로 미리 수비 동선을 그려 놓는다”고 말했다. 집중력의 중심에는 노력이 있었다. 이준호는 “처음에는 전력분석팀, 코치님들의 조언과 자료가 많이 도움이 됐다.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 수비 방향을 그리는데 더 쉬워졌다”며 “사실 발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다. 하지만 평고를 많이 받다 보니 타구 궤도가 익게 됐고 공을 따라가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인 것이 수비범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준호를 있게 한 동력이 집중력이지만 반대로 집중력 때문에 한계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준호는 “후반기 들어서 타격이 너무 좋지 못했다. 부상 때문에 캠프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시즌이 진행되면서 체계적인 문제가 생겼다”며 “체력이 떨어지지 집중력도 떨어지고 몸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를 기다리고 있는 2013시즌은 만만치 않다. 이용규·김상현·나지완·김원섭이 버티고 있는 외야에 ‘FA 대어’ 김주찬까지 더해지면서 생존경쟁은 더 뜨거워졌다. 이준호는 “마무리 캠프에서 타격 임팩트 때 힘쓰는 것, 테이크백을 하는 부분을 배우고 준비했다. 지난해보다 기회가 줄어들겠지만 반드시 기회는 올 것이라고 본다. 열심히 하겠다. 재미있게 즐겁게 또 치열하게 스프링 캠프를 치르겠다.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WBC 한국 대표팀 역대 최고 지원 받는다

단복·야구용품 최고급



제3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역대 최고의 지원을 받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첫 ‘드립팀’이 결성된 이래 쌓아온 대표팀 지원 역량을 총동원해 선수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해 태극마크를 달고 야구 최강국 결정전에 출전하는 만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지원, 숙소·복장 마련 등 세심한 부분에 정성을 쏟고 있다. KBO는 먼저 선수단 단복을 제일모직이 만든 최고급 정장으로 준비했다. 1~2회 대회 때와 달리 양말, 구두, 벨트까지 ‘세트’로 맞춰 수 백만원의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15일 대표팀 출정식 때 선수들의 치수를 재 정장 제작을 마친 KBO는 2월12일 대표팀이 대만으로 전지훈련을 떠날 때 나눠줄 예정이다. 대표 선수들은 대표팀 후원업체인 나이키사가 제작한 야구용품 이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글러브를 KBO에 요청할 수 있다. KBO의 한 관계자는 “선수들이 WBC에서 원하는 용품을 쓸 수 있도록 방향이(야수)와

글러브(투수)를 따로 주문받았다”고 22일 소개했다. KBO는 각종 업체의 후원을 받아 야구용품 이외의 고가 패션 액세서리 패키지 세트를 제작해 선수들에게 나눠줄 계획도 세웠다. KBO는 2월12일부터 2주간 대만 자이언트 도류구장에서 열리는 전지훈련에서 선수들이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대폭 확충했다. 2회 대회 당시 전용 장소로 사용한 미국 하와이주 샌트럴오아후 볼파크에 선수단 휴식 시설이 없었다는 불만을 접한 KBO는 인천 문화구장과 비슷한 천연잔디와 신식시설을 갖춘 도류 구장을 섭외했다. KBO는 또 류중일 대표팀 감독의 요청에 따라 도류 구장 야외에서 투수들이 어깨를 풀 수 있도록 볼펜 2개를 새로 지었다. 선수단 숙소에는 한국처럼 무선 인터넷이 잘 터지도록 호텔 측과 협의해 미리 와이파이망을 새로 깔았다. 5명의 트레이너는 대표팀 기량을 끌어올릴 비장의 무기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1~2회 대회 때 트레이너를 3명씩 데리고 갔으나 선수들 몸을 완전히 풀어주기에는 부족했다”며 “류 감독의 요구를 수용해 숫자를 2명 늘렸다”고 설명했다. KBO는 매일 한 개 이상 한식을 준비하는 등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선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WBC 한국-대만전 입장권 1000장 남고 다 팔려

오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제3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본선라운드 B조 경기의 입장권이 거의 다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중앙통신은 대만과 호주의 개막전을 비롯해 대만-네덜란드, 한국-대만 경기 등 대만 경기의 입장권이 예매와 함께 불타나게 팔렸다고 22일 전했다. 경기가 열릴 인터컨티넨털 구장은 1만 9000명을 수용한다. 통신은 3월 2일 오후 1시30분 벌어지는 대만-호주의 첫 경기 입장권이 17일 예매 시작과 함께 5시간만에 매진됐다고 소개했다. 3월3일 대만-네덜란드 경기 현장판매분은 4000장, 3월5일 한국-대만의 마지막 경기

입장권은 고작 1000장만 남아 있다. 통신은 예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타이베이에 관 3000명을 파견, 대표팀을 응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팬들은 이번 대회를 나설 자국 야구 대표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대만은 1~2회 WBC에서 한국과 일본에 밀려 본선 2라운드가 벌어진 미국 땅은 밟아 보지 못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몇 수 아래로 본 중국에 무릎 꿇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만은 왕젠밍, 귀홍성 등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 투수를 필두로 해외파를 몽땅 끌어 모아 안방에서 부활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나 나와” 여자프로테니스(WTA) 랭킹 2위인 마리아 샤라포바(26·러시아)가 22일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8강전에서 에카테리나 마카로바(25·러시아)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샤라포바는 1회전부터 8강까지 5경기동안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2-0 승리를 거뒀다. 샤라포바는 랭킹 6위 리나(31·중국)와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연합뉴스

호주오픈서 주목받는 유망주 이덕희

국내 남자 테니스 유망주인 이덕희(15·충북 제천동중)가 주요 외신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22일 인터뷰 기

사를 통해 청각장애라는 불리함을 딛고 메이저대회에 출전한 이덕희를 조명했다. AP통신은 “한국의 주니어 선수 이덕희는 상대 선수와 공을 치는 소리가 선심의 풀을

청각장애 딛고 ‘메이저’ 출전 최연소 주니어 단식 본선 승리

들 수 없다”고 전했다. 이덕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청각장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이겨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P통신은 “이 인터뷰는 먼저 이덕희가 자신의 코치에게 말을 하면 코치가 그의 입술 모양을 보고 영어 통역에게 다시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회 예선을 거쳐 본선까지 진출한 이덕희는 1회전 승리로 국내 선수 가운데 역대 최연소로 메이저대회 주니어 단식 본선에서 승리를 따냈다. /연합뉴스

WBC 강력한 우승후보 도미니카 초호화 멤버

제3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 출전하는 도미니카공화국 대표팀 전력의 윤곽이 드러났다. WBC 조직위원회는 대회 한달반을 앞둔 22일(한국시간) 도미니카공화국의 예비 출전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예비명단에는 포지션별로 투수 11명과 포수 2명, 야수 10명 등 총 23명이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선수 전원 이 현역 메이저리거로 구성됐다. 로빈슨 카노(뉴욕 양키스), 호세 레예스(토론토 블루제이스), 헨리 라미레스(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벨스 크루스(텍사스 레인저스) 등이 버티는 타선의 중량감이 상당하다. <도미니카공화국 WBC 대표팀 예비 명단 >▲투수(11명)=산타고 카시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옥타비오 도발(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페드로 피게로아(오를랜드 어

슬레틱스), 켈빈 에레라(캔자스시티 로열스), 알렉시 오간도(텍사스 레인저스), 조엘 페랄타-페르난도 로드리(이상 탬파베이 레이스), 완디 로드리게스(피츠버그 파이리츠), 에스밀 로저스(토론토 블루제이스), 페드로 스트롬(볼티모어 오리올스), 에딘스 볼케스(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포수(2명)=미겔 올리보(시애틀 매리너스), 카를로스 산타나(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내야수(7명)=에릭 아이바(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에드윈 벨트레(텍사스 레인저스), 로빈슨 카노(뉴욕 양키스), 에드윈 엔카나시온·호세 레예스(이상 토론토 블루제이스), 헨리 라미레스(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미겔 테하다(캔자스시티 로열스) ▲외야수(3명)=멜키 카브레라(토론토), 벨스 크루스(텍사스), 카를로스 고메스(밀워키 브루어스) /연합뉴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후원 : 남해고속

흑산도상리봉 등반및 자유관광

출발일 당일(찍수날 출발)

여행비 주 중 88,000원 주말 9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흑산도 왕복쾌속선 흑산도 중식 제공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홍도 / 흑산도 특가 이벤트

출발일 3월1일~2일(1박2일)

여행비 주 중 15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 흑산도, 홍도 왕복쾌속선/ 숙박비 (5인이상 합숙)/ 식사비(4식)/ 홍도유람선/ 여행자보험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